

1960년대 후반의 대중소비사회 담론과 증상으로서의 글쓰기*

—김승옥의 『60년대식』을 대상으로

박진영**

요약

이 글은 1960년대 후반의 김승옥의 장편 『60년대식』(1968)을 대상으로, 작품이 쓰여진 당대의 지배담론의 특징과 관련해 소설에 나타난 증상 형성 동기와 그 양상을 살핀다.

『60년대식』의 '도인'은 유서와 사표를 쓴 후, 자살을 유예한 채 만 이틀 간 도시군중을 탐색하는 인물인데, 그의 박람기는 대중소비사회로의 본격적 진입을 앞둔 당대의 시대상에 근거한다. 그가 만나는 다양한 인물군상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사회 전반의 '외형적' 경제성장의 성과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사회 주체로서의 대중들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대중가수가 된 '주리'를 포함해, 이들은 대중의 심리·욕망·정체성을 대리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60년대식』에서 대중은 '시청각시대'의 대중문화를 적극 향유하는 동시에,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에 포박되어 있는 파편화된 인간 무리로 그려진다.

이뿐 아니라 『60년대식』은 60년대 후반 대중의 삶에 침착된 공적 지배이념의 단면을 현상해준다. 1968년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시행을 통해 억압적 정치현실이 개인의 일상과 내면을 어떻게 규율했는가를 보여주는 한편, '산상수훈(山上垂訓)'이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예수의 산상설교에 빗대어 남산 팔각정에서 펼쳐지는 경제인 사내의 '복음'을 비판·풍자한다. '60년대식' 산상수훈은 당시의 발전주의가 종교적 복음 못지않게 강력하게 작동했음을 드러낸다. 이때 도인이 느끼는 소외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876)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과 패배감은 60년대 후반 대중 일반의 감정구조가 되기에 충분하다. 김승옥의 『60년대식』은 결국 물질·성적 욕망에 포획된 소비주체로서의 대중이 60년대 후반 경제성장 일변도의 통치 이념과의 긴밀한 연관성 하에 형성된 대상임을 적시케 한다. 공론 장에선 대중사회 담론이 개화되었지만 대중의 문학적 형상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김승옥은 『60년대식』을 통해 대중소비사회의 징후를 묘파하는 한편, 맹목적 발전주의의 이면을 희화화함으로써 60년대 말에 수행된 증상으로서의 글쓰기의 정치성을 확인시켜준다 할 수 있다.

주제어 : 김승옥, 60년대식, 대중소비사회, 대중, 증상, 발전주의

목차

1. 들어가며
2. '시청각시대'와 대중의 감성
3. 성장지상주의와 60년대식 환상 끌어내리기
4.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김승옥의 『60년대식』(1968)을 대상으로 1960년대 후반의 지배 담론의 특징과 관련해, 소설에 나타난 증상형성 동기와 그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학연구에서 '증상'은 흔히 신체적·정신적 환부를 지닌 인물의 아픔과 상처를 환기하거나, 사회병리학의 표상으로서 불합리와 비정상성을 비유하는 문학적 상징이 되어 왔다.¹⁾ 그러나 증상은 단지 고독한 개인, 불안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색하는 통로이거나, 시대 및 사회

1) 60년대 이후 한국소설의 현저한 성격의 하나는 그 유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경·생리·정서에 있어서 아픔의 환부를 가지거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및 특별한 심리적 증후 현상을 지닌 인물들과 그들의 병든 세계를 소설적인 공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7, 200면)

의 제반 부정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소재에 머물지 않는다.²⁾

김승옥 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위악적 행동, 불안, 우울과 같은 징후뿐 아니라, 『60년대식』에서의 ‘유서 쓰기’는 당대의 핵심적 멘탈리티와 관련한 기전을 갖는다. 1960년대 후반을 규율했던 지배담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시대의 ‘답답함’을 고발하기 위한 유서 쓰기의 전략은 김승옥의 이전 작품에서의 현실에 대한 환멸의 정서를 환기하는 개인적 죽음이 아닌, 행동하고 전시하는 사회적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60년대식』의 도인은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을 버린 후 대중의 일원이 되어 도시군중을 탐색하는 인물인데, 그의 만 이틀 동안의 박람기는 대중소비사회로의 본격적 진입을 앞둔 당대의 시대상에 토대해 있다. 신문사에 유서를 투고하는 장면으로부터 더 이상 “자살하기 싫어”지는 일련의 서사는, 대중사회의 증후를 드러내는 동시에 발전주의의 허상을 응시케 한다. 이 글은 그동안 흔히 통속적인 세태소설로 분류되어온 김승옥의 『60년대식』을 새롭게 읽기 위해, 증상의 기제를 통해 소설에 주로 나타나 있는 대중사회와 성장주의의 문제에 주목하려 한다.

1960년대는 4·19와 5·16을 동시에 겪은 정치사적 격동기였으며, 경제성장을 국가목표의 최우선에 두었던 발전주의가 군부권위주의와 결합한 시기였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고도성장의 경제적 지표가 사회화되면서, 산업사회에의 본격적 진입을 앞둔 60년대 말은 60년대 전반

2) 증상을 60년대 압축적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환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사회사의 단순한 반영은 일반론에 머무를 뿐 아니라, 문화연구 또한 작품의 고유성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증상의 독법’은 이에 비해 보편적 실재로서의 전체성, 이데올로기 등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구성을 위해, 자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억압해야만 했던 것을 대면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즉, 보편적 실재에 내재하는 균열의 지점, 부정성의 내적 동기를 인과적으로 재구성해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글은 김승옥의 『60년대식』이 당대의 지배담론에 대한 일종의 대항담론으로서의 증상의 개념을 적극 내포하는 텍스트라는 전제 하에, 성장·발전을 위한 총력동원체제가 그 대가로 교환한 억압의 대상을 적시하고자 한다. 증상을 매개로, ‘억압된 것의 회귀’ 내지 ‘억압과정의 결과’로서 충분히 소산되지 않은 ‘60년대식’ 외상의 기억들이 소환될 수 있으리라 본다.

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경제의 태동기라 할만한 60년대 일반의 성격규정 가운데, 6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사회는 주지하듯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60년대 초반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른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노선은 본격적인 개발 드라이브를 구동하며, 사회 전반의 ‘외형적’ 근대화의 성과를 이끌기 시작했다.³⁾ 65년에 이어 ‘일하는 해’로 공식 선포된 66년을 지나, 박정희 대통령은 소비사회를 실현가능한 미래상으로 제시하기에 이른다.⁴⁾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대중을 호출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전술한 사회 변동과 관련해, 익명의 광범위한 다수로서의 대중의 형성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⁵⁾ 첫째, 대량생산·소비가 차츰 가능하게 된 경제적 여건 속에 이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형, 소비주체의 창조를 위해 대중문화의 재구성이 요구되었다.⁶⁾ 둘째, 신문·잡지의 활자미디어뿐 아니라 텔레비전·영화의 영상미디어 매체를 통해 대중문화를 적극 향유하는 주체, 즉 일과 후 개인적 오락생활을 즐기는 임금노동자 계급이 형성된다. 셋째, 근대화의 과업과 통치 정당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문화를 적극 활용했던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⁷⁾이

3) 1인당 국민소득은 61년 79달러에서 65년 100달러를 돌파했고, 60년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은 68년 13.3%, 69년 15%의 가파른 상승세였다.(한국은행 www.or.kr 참조)

4) “소비에 대한 인식은 1966년에 접어들어 극적으로 변화했다.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사회”의 전망을 내놓자 소비는 미덕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실체가 되어 통용되기 시작했다.”(김성환, 『1960~1970년대 노동과 소비의 주체화 연구』, 『코기토』 81, 2017.2, 552면)

5) 이 시기 대중 담론에 대해서는 송은영, 『1960~19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 2011; 송은영, 『1960~1970년대 한국 대중사회논쟁의 전개 과정과 특성』, 『사이[[SAI]]』 제14호, 2013; 조강석, 『대중사회 담론에 잠재된 두 개의 간극이 드러내는 ‘담론의 욕망’』, 『한국학연구』 28, 2012.12; 조강석,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 연구』 50, 2013; 황병주, 『유신체제의 대중인식과 동원 담론』, 『상허학보』 32, 2011 참조.

6) 조흡, 『1960년대 대중문화의 형성과 시민사회로서의 영화』, 『영상예술연구』 13, 301면.

‘대중 동원’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선 ‘시민’⁸⁾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이념성을 얼마간 탈각한 채 획일화 되어가는 집단체로서의 성격 변화가 그것이다.⁹⁾ 이러한 배경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것이 4월혁명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임을 자처했던 ‘시민’¹⁰⁾, ‘대학생’ 담론을 거쳐 60년대 후반 대중의 출현을 실현시킨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김승옥의 『60년대식』은 앞서 말했듯 유서와 사표를 쓴 도인이 고애경을 찾아나서는 데서 출발해 60년대 후반의 대중을 관찰하는 형식을 취한다. 팝송계의 인기가수가 된 주리, 결혼상담소 비밀요원으로 일하는 애경, 파월기술자 남편이 보내준 돈 때문에 불안 증세를 겪는 ‘오야’, 전쟁의 상흔을 딛고 유학을 떠나게 된 화학기사 손명우, 밀수공화국을 꿈꾸는 경제인 사내, “회사의 사장님 냄새가 더” 나는 교장-등이 그들이다. 그런데 『60년대식』에서 도인의 좌충우돌기는 그가 “무직”이 되어 스스로 대중의

7) 김수정, 『1960-70년대 한국 문화정책에 대한 재고찰』, 『문화와 사회』 27, 2019.4, 312면.

8) 시민은 ‘도시의 주민’이라는 단순한 어원에서 출발했지만, 그 사회적·정치적 의미는 ‘도시라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민 개념은 특정한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의미를 함축하며, 그 의미는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함께 변화한다.(신진옥, 『시민』, 책세상, 2015, 22면) 한 예로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시민, 시민사회의 연관성이 자연스럽다면, 대중이라는 개념 또한 관점과 시각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개념이다. 불특정한 다수를 뜻하는 대중은 “수적으로 다수일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다.”(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2012, 36-40면) 이 글에서 ‘시민’이 4·19경험을 폭넓게 지시한다면, ‘대중’은 60년대 후반의 대중사회 담론, 대중사회화와 관련해 사용되는 개념임을 밝힌다.

9)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박정희는 4·19를 통해 거리와 군중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었기에(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대중정치와 공안통치』, 『내일을 여는 역사』 53, 2013.12, 56-57면), 60-70년대 전반에 걸쳐 저항세력에 대한 총력탄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강압적 수단을 통한 통치뿐 아니라, 개발이라는 근대적이며 전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 목표를 위해 민중의 동의가 창출되었던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3, 39면 참조)

10) 조강석은 1960년대에 ‘시민적’이라는 말은 현실적합성보다는 당위적 가치의 모색과 결부되어 사용되었다고 진단한다.(조강석,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 연구』 50, 2013.6, 14면)

일원이 된 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중과의 거리두기로 우월감을 지녔던 그이지만, 애경으로 인해 결혼상담소 일에 휘말리고 변두리 뒷골목에서 에로영화를 보는 등 파편화된 인간 무리들이 존재하는 대중사회에 편입되는 것이다. 『60년대식』은 공론 장에선 이미 대중, 대중사회 논의가 개화되었지만, 그 문학적 형상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대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변화를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가운데 근대화 담론 일반이 아닌 60년대 후반의 대중사회적 면모와 관련해 『60년대식』을 분석한 예는 흔치 않다.¹¹⁾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의 연관성 하에 김승옥의 작품세계를 살피는 작업 역시 그러하다. 대중매체의 등장과 소비문화의 융성은 그 자체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지만, 60년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문제성은 더욱 배가된다. 가령, 대중매체의 총아라 할 텔레비전의 경우 도입의 맥락에서 볼 때 “개발 연대의 유용한 수단으로” “위로부터 주어”¹²⁾진 것처럼, “사회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대중사회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 매체들은 “정치적 변동을 문화적 차원의 정신세계로까지 연결시켜 내는 핵심 테크놀로지”¹³⁾였다 할 수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형성된 대중사회의 도래를 당대의 지배담론, 국가 주도의 공적 이념체와 함께 살피야 할 이유를 뒷받침한다. 이 글은 『60년대식』¹⁴⁾에 나타난 대중의 의미를 60년대 후반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연계해 살핌으로써 증상으로서의 글쓰기가 수행되는 한 방식을 재구하고자 한다.

11) 김경연, 「통속의 정치학—1960년대 후반 김승옥 ‘주간지 소설’ 재독」, 『어문론집』 62, 2015.6; 이시성, 「김승옥의 ‘60년대식’ 생존방식」, 『한국문학논총』 76집, 2017.8.

12) 임종수, 「1960~1970년대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 『한국언론학보』 48(2), 2004.4, 81면.

13) 위의 글, 88-90면 참조.

14) 이후 본문의 인용은 『김승옥 소설전집3』(문학동네, 1995)에 근거해 면수만 밝힌다.

2. '시청각시대'와 대중의 감성

대중, 대중사회 담론의 활성화는 1970년대에 본격화되지만, 60년대 말의 대중의 성장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한 변곡점을 보여주는 기호에 해당한다.¹⁵⁾ 《선데이서울》에 연재되었던 김승옥의 『60년대식』은 당시의 변모하는 대중적 삶의 관찰기로 읽힌다.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사인 도인은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무리 속에 섞인다. 주리, 애경, 고바우 영감, 오야, 손명우, 장소장, 교장, 사내, 헌책방주인, 리어카꾼 등의 인물군상을 누비며, 『60년대식』은 선동과 전시효과로 '선취'한 풍요로운 소비사회의 도래와, 독재화하는 권력의 더욱 공고해지는 규율체제의 증상을 그려낸다. 그렇다면 시민(citizen)도 민중(people)도 아닌 대중(mass)의 특징적 면모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대중'과 '소비'가 기존의 '시민'과 '생산'의 가치를 대체하며 급부상하는 과정은 압축적인 근대화만큼이나 갑작스럽게 경험되었다 할 수 있다. 『60년대식』의 주리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이자 소비대중의 일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가수"가 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가수로서의 출세"에 희의를 갖게 되었을 때 도인을 만나 부부가 되지만, 며칠 전 이혼을 한 상태이다. 그런데 주리가 대중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다음과 같이 대중의 심리, 욕망, 정체성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인은 주리(朱利)의 그 말할 수 없이 천박한 화술, 경술한 행동, 몰염

15)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와 사회 주체의 성격 규정을 두고 대중사회론이 핵심적 쟁점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70년대 초반에 대중사회 담론이 본격적으로 운위되지만, 지식인들의 담론의 장에서 대중사회가 직접적으로 호출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즈음의 일이다. (조강석, 「대중사회 담론에 잠재된 두 개의 간극이 드러내는 '담론의 욕망」, 『한국학연구』 28, 2012.12, 10-12면)

치, 무지, 분수에 맞지 않는 출세욕 등에 단박 반하고 말았다. (...중략...) 소비만 하기 위하여 태어난 듯한,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성 중의 하나가 바로 주리였는데, 도인으로서의 여자의 **은박지 같은 그 가벼움**에 묘하게 마음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다가 어느 날 주리는 갑자기 유명한 가수가 되어버렸다.

주간신문에서는 주리가 부른 곡에 별을 여러 개씩 달아주었고, 그 여자는 텔레비전의 쇼프로와 무대의 쇼와 지방공연과 일선장병 위문에 바빠져버렸다.

도인은 주리를 **대중**에게 빼앗겨버린 것이었다.(200-201면)

주리의 “은박지 같은 그 가벼움”은 개인에 국한된 사적 특징이라기보다 다수의 무리 특징을 반영하는 기호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빈곤론과 달리, 60년대 후반 이후 상류층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격렬한 비난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시점에서¹⁶⁾ 소비는 이제 대중적 욕망의 분명한 지향점이 된다. 당시의 매스미디어가 ‘생산적 인간’으로서의 산업역군을 일탈하는 ‘소비적 인간’들의 욕망을 간취하고 적극 고무한 매개였다면¹⁷⁾, 『60년대식』에서 주리를 주간신문과 텔레비전을 횡행활보하는 대중스타로 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근대화의 기치가 전 국민을 규율하고, 68년 1월 북한군의 습격사건 이후 “싸우면서 건설하자”의 표어가 산업현장 곳곳에 걸린 상황에서, 도인의 부정적 시선과는 별도로 소비대중의 형성은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할 수 있다. 나아가, 김승옥은 인용문에서 보듯 화폐로서 돈이 갖는 물질 가치뿐 아니라 화술, 행동, 욕망, 지식, 태도 등의 사회적 아비투스¹⁸⁾를 통해 표현되는 새로운 사회 주체의 형성을 포착해낸다.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별’과 ‘쇼’에 휘둘리는 전형적 집단성을 띠지만 대중문화의 융성은 이미 도래한 사실이었고, 노동이 끝난 시간에 볼

16) 김성환, 앞의 글, 556면.

17) 김경연, 『통속의 정치학—1960년대 후반 김승옥 ‘주간지 소설’ 재독』, 『어문론집』 62, 2015.6, 383면.

거리를 찾는 근로대중의 여가문화는 대중스타의 소비를 가능케 한 조건이 되었다. 인용문에서 주리를 “대중에게 빼앗겨버렸다는 표현은 일종의 상품이 된 주리를 통해 급변하는 현실의 부정적 징후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대중은 어떤 존재인가. 주리의 부박함이 표상하듯 소비문화, 문화산업에 둔감하게 안주하는 수동적·순응적 집합체에 불과한가. 적극적으로 ‘문화 참여자’이자 다양한 ‘취향과 욕구를 가진 개인들’로서의 대중은 이상일 뿐인가.¹⁸⁾ 『60년대식』에서 대중은 일차적으로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에 포박된 채 파편화된 인간 무리로 그려진다. 대중의 특징을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의식의 결여로 규정짓지 않더라도, 주리의 “그 가벼움”은 소비대중의 감성을 대변한다. 오직 ‘잘 살아야 한다’는 국가적 욕망에 복무하는 자가 국민이라면, 대중이란 ‘오락/재미’라는 지극히 개인적 욕망에 탐닉하는 사사화된 존재들¹⁹⁾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좋은 술도 한잔쯤 마셔봐야 할 게고, 집에 손님이 오면 전기냉장고에서 맥주라도 한 병 꺼낼 수 있어야 할 게 아니겠소?”(290면)라며 도인에게 십년 후 ‘누가 더 재벌이 돼 있냐’의 내기를 제안하는 교장과, “재미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만저만 재미있는 영화가 아”닌 에로물에 “마치 동학도 처럼, 기독교도처럼”(306면) 열중하는 군중의 모습은 그 단적인 예이다. 『60년대식』에서 대중의 에너지는 주로 물질적 가치와 성적인 욕망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한편 도인은 주리의 근황을 “대중잡지의 가십란”을 통해 짐작할 정도의 외부인이 된다. 전술했듯이 대중을 향한 도인의 부정적 시선은, 그 편입을 거부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는 자기소외의 근거였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를 대중에 호명해야 할 사건에 직면한다. 그러나 “무직”에 “알거지”가 된 그는 이제 더 이상 건설·생산 논리에 복무하는 국민도, 소비의 여력을 갖춘 온전한 대중도 아닌, ‘60년대식’ 사회를 현람하는 모험가가 되기

18) 김수정, 앞의 글, 309면 참조.

19) 김경연, 앞의 글, 382면.

에 이른다. 도인은 이미 세상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로서의 유서를 신문사에 투고한 바 있다. 그의 유서는 잡지의 '가십'과 신문의 "그 알아보기 힘든 일단짜리 광고"(217면)에 머물지 않는다. 통속성과 시시함뿐이라면 도인은 익명의 유서를 투고하지 않았을 터이다.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도인은 다중적 매체로 신문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 신문을 넘어, 60년대 후반 '리얼리즘을 담기 위해' 시나리오와 각색 작업 등 영화로 활동영역을 넓힌 작가 김승옥의 궤적을 복기하게 해준다.

또한, 『60년대식』에서 죽음의 의미를 알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한 '시간별기'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저당 잡혀 "알거지"가 되는 서사와 대응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 발전의 성공신화가 즐비한 자본주의사회에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상황은 그 자체 징후적이다. 빈곤을 떨치고 일어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재건신화가 전 국민을 독려할 때, 도인의 파산은 그 이면의 무의미와 불능을 응시케 하기 때문이다. "월남경기(越南景氣)"의 흥청거림 속에 "아아 70년대! 풍성한 70년대"(231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사회적 현실 한복판에서 빈털터리가 된 그는 얼마간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청계천의 헌책방을 찾아간다.

'책'은 대중문화의 융성과 대비해 『60년대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소설 전편에서 책의 행방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도인은 주변 정리를 하며 소유물 중 "대학생 시절부터 절약하고 절약하여 사모은 책들"(197면)이 "가장 귀중한 유품(遺品)"이 될 거라 생각하며 그 처분을 고민한다. "전공서적보다는 교양서적이 더 많고, 국내서적보다는 외국서적이 더 많"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처치하고 싶었"던 책은 그러나 사과상자 여덟 개에 담겨 "근으로 달아서 종잇값"으로 교환되고 만다.²⁰⁾ "종이

20) 60년대 후반 '지식의 무력화'와 '지식의 오락화'에 대해서는 김경연, 앞의 글, 392면 참조.

의 묶음 이외에 더 무엇”(301면)이 아닌 것들 가운데 유일한 흥정 대상은 주리가 일본에서 사온 춘화집이다.

① “쓸 만한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옛날하고는 달라서…… 이런 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난뱅이들이니까요. 넉넉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책이 필요없고……” (…중략…)

“사실 말이지 영화나 텔레비도 미처 다 못 보는데 미쳤다고 책을 사겠습니까? 하기가 넉넉한 사람도 책을 사기야 사죠. 하지만 이런 책은 아닙니다요, 문화주택의 거실에 진열해놓을 진집물이죠. 표지들이 예쁘거든요. 시청각시대란 걸 모르시는 모양이군요.”(297면)

② 도인은 이제 다른 경우를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빌려온 것이 아닌,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가능했을 일을.(265면)

인용문 ①의 현책방주인은 사회 교사인 도인에게 ‘시청각시대’의 현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60년대 후반의 출판시장은 나름 호황기였으나²¹⁾ 독서대중의 수요는 주로 주간지 전성시대의 별칭에 걸맞은 대중잡지와 전집류에 집중되어 있었다.²²⁾ 『60년대식』에서도 문화주택에 전시할 양장본 전집과 원색적 재미만을 추구하는 오락거리만이 그 극명한 사례로 제시된다. 1969년까지도 텔레비전 보급률이 3.9%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²³⁾, 이때의 시청각시대란 특정 매체의 상용화보다는 활자매체가 담당했던 역할을 시청각 미디어가 대신하게 된 변화를 뜻한다 볼 수 있다.²⁴⁾

21) 《출판연감》 1966년판에 의하면 ‘1965년은 한국 출판사상 최고였다고 평가된다. 경제성장과 인구팽창, 독자층의 성장에 의해 한국 출판자본주의의 호시절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120-121면)

22) 정영희, 『196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2009.9; 천정환·정종현, 위의 책, 참조.

23) 이상록, 『TV, 대중의 일상을 지배하다』, 『역사비평』, 2015.11, 102면.

그러나 “시청각 미디어들이 생산하는 대중문화가 60년대 후반의 지배적 문화로 등극한 것은 당연한 수순”²⁵⁾이며, 단적으로 69년 국민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는 6회에 이르게 된다.²⁶⁾

영화, 텔레비전과 같은 뉴미디어의 영향력은 일상의 국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도인과 애경이 저녁을 먹으러 간 장면에서 양식집의 웨이터는 “서양 영화에서 배운 듯한 몸짓으로”(244면)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한다. 활자 인쇄 미디어 중심 시기의 대중들에게 논리와 이성이 중요했다면, 영상미디어 시대에는 이미지와 감성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변화는 물론 상대적 의미를 갖지만, 위의 인용문 ②에도 영화의 영향력은 반복 제시된다.²⁸⁾ 도인은 자신의 마지막 하루로 예정돼 있던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었을지 상상해본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은 소설, 영화에 구속되어 있다. 시청각시대 대중문화는 “개인들의 생활습속이나 취향 변화는 물론 내밀한 욕망의 구성에도 개입”²⁹⁾해 개개인의 의식과 욕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도인에게 있어 “죽음을 각오하고 산 마지막 하루의 삶”이었지만, 그것은 “더러울 정도로 찜찜”(264면)할 뿐이다. 사기결혼을 알선하는 결혼상담소 소장과 고애경의 행각에 휩쓸려 타워호텔에서 밤을 보낸 도인의 하루는 주리의 부박함 못지않게 시시하고 통속적이다. 『60년대식』은 “빌려온 것이 아닌”, 자신만의 진짜 상상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일탈마저 “찌찌”해진 상황을 진단한다. ‘답답한’ 현실로부터 일탈을 시도하지만 그 역시 현실과 다르지 않을

24) “60년대 중반을 전후해 종래의 대중미디어를 대표했던 신문·잡지 등 활자매체의 위력이 후퇴한 반면, 라디오·영화·TV 등 시청각 미디어의 영향력은 현격히 증대되면서 이들 신종 미디어가 일상의 변화를 적극 추동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김경연, 앞의 글, 383면)

25) 위의 글, 383-384면.

26)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권』, 인물과사상사, 2004, 309면.

27) 이상록, 앞의 글, 103면.

28) 김승옥이 영화 각색 작업을 16편이나 한 시나리오작가이기도 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9) 김경연, 앞의 글, 384면.

때, 이틀간의 박람은 엉뚱한 소극(笑劇)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3. 성장지상주의와 60년대식 환상 끌어내리기

1960년대 말은 주지하듯 성장지상주의³⁰⁾의 지배하에, 69년 삼선개헌 이후 70년대 초 유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와 독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시기였다. 이는 60년대 후반 더 이상 ‘개인의 발견’ 내지 4·19문학의 대표작가와 같은 의미망만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김승옥 작품에 새겨진 당대 정신구조의 흔적이기도 하다. 남산 팔각정에서 도인이 “도무지 서울 같아 보이지 않는 서울을 오랫동안 내려다보”(266면)는 장면이 암시하듯, 서울입성의 신화는 미완의 완료형이 되었고, 60년대 벽두의 혁명의 감동 대신 “이십팔 세의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199면)은 유서와 사표를 쓴다. 이와 관련해 『60년대식』은 억압적 정치현실이 개인의 일상과 내면을 어떻게 규율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당대의 공적 이념체가 개인의 정신마저 국가발전에 귀속시키려 할 때, 김승옥 작품에서는 현실풍자가 적극 가동된다. 다음 인용문은 60년대 후반 대중의 삶에 침착된 공적 지배이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노인들 세 사람이 석간신문을 펴들고 앉아 내무부의 법안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었다.

“거참 편리하게 됐네 그려. 우선 족보를 만드는 데 수고가 덜어지겠어.

30) “성장지상주의는 경제성장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추구해야할 지상과제이자 절대가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맹목적 인식과 도구적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보편화시키고, 과점상의 문제점이나 도덕적·윤리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훼손하는 사회적 심리상태를 초래한다.”(윤상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한국사회』 17집 1호, 2016, 5면)

1000번과 5001번이 결혼하여 1003번, 2004번, 60023번을 낳고, 장남인 1003번이 2002번과 7777번과 결혼하여 낳은 딸인 23456번과 결혼하여……”

“예끼, 이 사람, 더 복잡하기만 하네 그러.”(211-212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12자리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1968년의 일이다. 1968년 5월 기존의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같은 해 10월 전 국민을 일련번호 하에 통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이 시행된다. 주민등록법은 국민을 공권력의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같은 해 9월부터 연재된 『60년대식』은 개인에게 부과된 일련번호가 국가의 검열기제임을 풍자한다.³¹⁾ 개개인 은 어디에서건 “2004”나 “60023”으로 불릴 필요가 없다. 위의 인용문은 도인이 고바우영감을 찾으려간 장면으로, 노인들 역시 저 ‘편리성’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0년대 개발독재정권은 주지하듯 남북관계의 긴장을 이용해 국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고 다수의 규율정책을 펼치는데, 김승옥은 공권력의 요체에 해당하는 “내무부의 법안”을 통해 숫자로 대리되는 인격 침해를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성장지상주의가 전 사회를 규율하던 1960년대 중반, 박정희는 경제수준을 점차 대량생산·대량소비 단계까지 끌어올려 소비가 미덕인 사회를 만들자며 소비사회의 도래를 예언·촉구한다. 아래 인용문 ①은 1966년 신년연설의 일부분으로, 탈후진근대화 담론이 60년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주도되는가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②의 도인의 상상에도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31) 『60년대식』은 68년 9월부터 69년 1월까지 《선데이서울》에 연재되었는데, 인용문은 10월 주민등록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의 법안에 대한 노인들의 대화부분이다. 작품에서 이는 “북괴는 휴전선 교란을 시도하고 (…) 내무부에서는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매길 법안을 만들고 있고”(202면)의 신문 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제시된다.

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완결시키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작년의 100달러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적어도 그 2배로 끌어 올리고 점차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단계까지 끌어 올려서, 우리 사회에서도 ‘소비는 미덕이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선진 국가 대열에까지 빨리 쫓아가야 합니다.

1970년대 후반기에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1966년 1월 1일)³²⁾

② 식료품 상인들이여, 소비가 미덕이 될 우리의 70년대엔 그대들도 무언가 하나쯤은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렇다. 바로 ‘먹는 가스’를 만드는 일이다. 아무리 들이마셔도 금방 똥구멍으로 새어나가버리는 가스쯤이라면 손님들은 얼마든지 자꾸자꾸 마실 것이고 그대들의 돈주머니는 자꾸자꾸 불룩해질 것이다.(230면)

①에서 선진국 대열에의 합류시점을 ‘70년대 후반’으로 명시해 총력동원체제를 정당화한다면, ②에는 ‘먹는 가스’를 만들어 상품화하는 ‘70년대식’ 상상이 제시되어 있다. 아무리 들이마셔도 금방 “새어나가버리는” 가스는 엉뚱한 공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들을 선동·독려해 “불룩해질” “돈주머니”를 꿈꾸게 하는 것의 이면성을 적시해준다.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선취한 대량생산·대량소비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증상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것은 기체가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텅 빈’ 것이어서 만이 아니다. ‘싸우면서 건설하는’ 산업역군이 소비가 미덕인 소비대중이 되려면, ①과 같이 국민소득을 2배로 펌핑하는 것이 당면과제인데, 이러한 총력동원체제가 ‘성장’을 대가로 교환한 ‘억압’의 실상을 도인의 상상을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무용의 “자랑”거리로서 성장지상주의 이념의 보편성에 내재하는 균열을 현상하는 방식인

32) 박정희, 『한국 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 2005, 149면.

것이다.

나아가 김승옥은 “산상수훈(山上垂訓)”의 제목이 붙은 다섯 번째 장에 “사십대의 중간쯤 되어 보이는 사내”를 등장시킨다.³³⁾ 그는 “뉴스영화 속 에서 보는 사단장처럼 지휘봉 비슷하게 생긴 스틱”(266면)을 들고, 자신의 할아버지 ‘황영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송한다.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말로 그 할아버지지. 그 투지력, 그 욕망, 쓰러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그 배짱, 난 우리 할아버지가 역시 좋아.”(267-8면)사내에 대한 묘사—“우렁찬 발자국 소리”, “쾌활한” “음성”, “철근처럼 단단하고 콘크리트처럼 우악스러워 보”이는 모습— 또한 황영 감을 닮아 있다. “악착스럽게 이익을 추구한 국가가 변영했”다며 “요는 잘 살아보자”(269면)의 열변을 토하는 사내의 “정력”은 그러나 황영감의 죽음을 자초한 ‘일찍 일어나기 시합’의 무의미함만큼이나 온전한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경쟁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논리 또한 마찬가지다. 김승옥은 갈릴리산 위에서의 예수의 산상설교에 우의(寓意)해, 서울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 팔각정에서 경제인 사내의 ‘복음’을 전한다. 60년대식 산상수훈(山上垂訓)은 당시의 발전주의가 종교적 복음 못지않게 강력한 것이었음을 풍자하는 한편 그 맹목성을 비판하는 상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로스토크(Rostow)의 경제개발 5단계론에 따르면, 60년대 중반 이후 한 국사회는 경제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 ‘도약준비기’에 있었다. 65년 5월 방한한 로스토크의, 한국경제가 후진국을 벗어나 도약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박정희 정권에 힘을 실어주었다면,³⁴⁾ 탈후진 근대화 담론은 『60년대식』의 화장실에서도 작동한다. 타워호텔의 화장실

33) 『60년대식』은 총 아홉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도인, 유서를 쓰다 2.애경양을 찾아서 3.도인, 자살하기 싫다 4.바람맞는 사람들 5.산상수훈 6.도인, 알거지 되다 7.맥주와 호텔 8.시 청각시대 9.뒷골목의 동학이 그것이다.

34) 강준만, 앞의 책, 21면 참조.

에서 “미국인이 나가버리자 도인은 일등 국민의 오줌 누는 자세를 흉내내어”(253면) 본다. 뿐만 아니라 도료를 연구하는 화학기사 손명우는 장학금을 얻어 ‘일등 국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된다. 당시 반공과 달러로 환원된 베트남전쟁이 경제개발의 도구³⁵⁾가 되고, 저개발국가도 단기간에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도약이론이 후진국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때,³⁶⁾ 도인의 소외감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도인의 “소유라고는 배기가스로 오염된 공기와 소외감 뿐”(266면)인데 비해, 사내는 서울 도심 한복판 한국은행 옆에 ‘번영빌딩’을 짓고 있다. “황염감의 그 정신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될 게 없”(268면)다는 그의 설교는 ‘하면 된다’의 박정희 정신을 지시한다. 이때 도인이 느끼는 소외감과 패배감은 60년대 후반 대중 일반의 감정구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인이 자살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우리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답답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죽으려 한다……”(202면)의 유서 서두에서, 답답함을 고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는 정권유지를 위해 공고해지는 규율체제뿐 아니라, 물신성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난다. 물신주의는 『60년대식』에서 도인이 만나는 모든 인물들, 애경, 주리, 오야, 사내, 교장을 휩싸고 있다. 이들은 서울 도심의 빌딩은 아니어도 자신의 집에 전기냉장고와 텔레비전쯤은 소유하기를 원하는 소비대중들로 묘사된다. 군부독재에 의해 수행된 60년대의 근대화가 주지하듯 경제개발에 국한되어 있었던 만큼, 박정희정권은 소비사회를 견인해야 할 산업역군이자 국가의 감시·통제를 받는 국민들이 정치적 저항성보다는 탈정치화된 대중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실제 박정희체제와 성장지상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1960년대의 경우,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제외하면 박정희정권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크지 않았고, 저항담론이라 할 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³⁷⁾는 점에 있

35) 황병주, 『1960년대 지식인의 68운동 담론』, 『역사비평』, 2018.5, 36면.

36) 강준만, 앞의 책, 20면.

다. 당시 고속성장률의 달성은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증가, 가계소비지출 증가, 절대빈곤률 감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동반함으로써,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지지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른다.³⁸⁾

서울 사람들은 그저 남자는 이발소에, 여자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털을 가다듬고, 그 다음엔 다방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엔 대중식당에 가서 불고기나 냉면을 한그릇씩 먹고나서 그 다음엔 또 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엔 약방에 들러 소화제를 사먹고, 그 다음엔 여관에 가서 자고, 그러다가 병을 얻어 병원엘 가고…… 그러기만 하는 것 같았다. (…중략…) 정말 이렇게들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중략…) 정말 이렇게들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왜 답답해 하지 않을 것인가!(293면)

인용문에서의, 사적 욕망에(만) 충실한 개인들, 먹고 마시고 수리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소비대중의 모습이야말로 답답함을 유발한다 할 수 있다. 김승옥 초기소설의 청년들이 현실에의 환멸로 인해 세상과 대결하는 자신의 결백성을 낭만화하기 위해 유서를 썼다면, 『60년대식』에서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자살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방법”(226면), 죽음의 의미를 세상에 타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60년대 후반의 불특정 다수로서의 대중을 향해 감행하는 “세상과 적대하는 가장 온전한 자기증명”³⁹⁾이 아닐 수 없다. 궁극적으로 그의 유서 쓰기는 발전주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응”⁴⁰⁾에 대한 반기라는 점에서 일정한

37) 윤상우, 앞의 글, 18면.

38) 위의 글, 17-18면.

39) 김경연, 앞의 글, 395면.

40) 정부가 위로부터 주도한 경제 발전주의에 대한 대중적 현상의 결합, 열렬한 대중적 호응에 대해서는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6, 100면 참조.

저항성을 갖는다. 60년 혁명의 거리체험의 의미가 퇴색한 시점에서, 도인은 자살을 유예한 채 상업화·통속화된 대도시의 삶으로 들어가 거리를 만보한다. 이때 그가 관찰한 대중의 일상은 물질 가치의 추구뿐 아니라, 성(性)이라는 사적 욕망에 충실하다.

『60년대식』에서 도인은 “여자를 소개해주는” “편리”(234면)한 곳과, “국가의 중흥을 기원하는 뜻에서”(247면) 만들어진 거대한 사찰 같은 호텔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로영화를 상영하는 변두리 뒷골목에 이른다. 도인은 “이탈소 직공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럴듯한 회사의 월급쟁이도 있는”(305-6면) 젊은이들의 무리에 섞여 “삼백원”짜리 작은 오락을 감상한다. 그러나 이들의 볼거리는 쾌락도 구원도 아닌, 패색이 짙은 ‘무위’의 오락에 가까운 것으로 그려진다. 비감스럽게 희화화되는 이들은 통속성과는 거리가 먼 지점에서, 성에 탐닉하는 원초적 욕망보다는 탈정치화된 대중의 무력화를 중심으로 초점화된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무얼 해야 좋을지 암담”한, “신문도 다 봤고 연속방송극은 그저 그렇고 권투 시합의 입장료는 턱도 없이 비싸고 그렇다고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 구경도 매일 하자면 이만저만 큰돈이 아”(306면)는 현실에서, 청년들은 정권과의 협력 하에 제공된 대중매체에 포획되어⁴¹⁾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 볼거리가 대량으로 주어진 시대지만, 청년대중이 모여 집단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소는 이제 지저분한 거리의 “어느 쓰러질 듯한 한옥” 골방인 것이다.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답답”한 공기만큼, 시대의 답답함을 타전하려 한 도인의 미완의 자살은 결국 폐허의 시간을 건디는 대중들에게 보내는 사회적 메시지의 의미를 갖는다.

41) “텔레비전 자체가 국가권력의 ‘발전주의’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즉 텔레비전은 그 자체로서 근대화를 상징하고 근대화를 이끄는 국가권력의 홍보장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임종수, 앞의 글, 101면)

4. 나오며

김승옥의 『60년대식』은 60년대 후반의 세대인정의 단순한 관찰기라기보다 다양한 대중의 삶에 접속해 당대의 증상을 재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60년대식』의 도인은 원래 “학생들에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가르치”(287면)는 일반사회 교사였지만, 이틀 동안 그가 기록한 서울의 일상은 국민의 권리와 무관하게 ‘억압’과 ‘성장’의 교환이 이뤄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제시된다. 교육 현장에서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민족중흥’의 조국근대화를 위한 국민정신의 훈육 및 통제가 강화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인들은 대중문화를 적극 향유하는 소비주체로서의 사적 ‘대중’, 사사화된 익명의 무리로 분할되고 있었다. 경제성장에의 기대감은 특히 “소비가 미덕이 될 우리의 70년대”(230면), “풍성한 70년대”(231면)에 대한 전망을 통해 소비대중의 욕망을 현실에 순응시키고 지배체제에 안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어느 시대이건 대중적 삶의 지평이 존재하지만, 60년대 후반 ‘시청각시대’의 도래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문화생산체제에 의한 ‘둔감함’과 ‘포만감’을 만들어주는 기만성을 내포한다. 『60년대식』에 의하면, 개인들은 국가이데올로기를 내화한 국민이자 새롭게 부상하는 소비대중사회의 일원으로서 분화하는 다층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60년대식』은 김승옥을 수식하는 ‘60년대 작가’의 별칭이 여전히 유효함을 잘 보여준다. 통속적·대중적 소재를 차용할 뿐 아니라 서사적 밀도가 떨어진다는 그간의 평가와 달리, 『60년대식』은 60년대 후반의 급격한 사회 변동에 민감한 작가의식을 증거해준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것은 대중소비사회의 징후를 드러내고 성장지상주의의 이면을 응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60년대 말에 수행된 증상으로서의 글쓰기의 정치성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3』, 문학동네, 1995.

2. 단행본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권』, 인물과사상사, 2004.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2012.

박정희, 『한국 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 2005.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15.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3.

천정환·정중현,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6.

3. 논문

김경민, 『無爲와 無用, 4·19세대 청년의 새로운 윤리—김승옥 소설의 청년 인물을 중심으로』, 『한문죽어문학』 86, 2019.12, 249-280면.

김경연, 『통속의 정치학—1960년대 후반 김승옥 ‘주간지 소설’ 재독』, 『어문론집』 62, 2015.6, 373-420면.

김성환, 『1960~1970년대 노동과 소비의 주체화 연구』, 『코기토』 81, 2017.2, 544-585면.

송은영, 『1960~1970년대 한국 대중사회논쟁의 전개 과정과 특성—1971년 대중사회 논쟁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제14호, 2013, 149-177면.

_____, 『1960~19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 187-226면.

윤상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한국사회』 17집 1호, 2016, 3-38면.

이시성, 『김승옥의 '60년대식 생존방식』, 『한국문학논총』 76집, 2017.8, 375-404면.

임중수, 『1960~1970년대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 『한국언론학보』 48(2), 2004.4, 79-107면.

정영희, 『196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2009.9, 468-509면.

조강석, 『대중사회 담론에 잠재된 두 개의 간극이 드러내는 ‘담론의 욕망』, 『한국학연

구』 28, 2012.12, 1-26면.

_____,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 문학의 연구』 50, 2013.6, 7-37면.

황병주, 『유신체제의 대중인식과 동원 담론』, 『상허학보』 32, 2011, 143-186면.

_____, 『1960년대 지식인의 68운동 담론』, 『역사비평』, 2018.5, 35-71면.

<Abstract>

Discourse of the Public Consumer Society in the late 1960s and Writing as Symptoms

Park, Jin-Young

This paper targets Kim Seung-ok's feature in the late 1960s, in *60s style*(1968), and examines the motive and pattern of the formation of symptoms in the novel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 discourse of the time when the work was written. The symptoms in this paper are especially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es the object of exchange that the all-out mobilization system for growth and development had to pay in return.

In the 1960s, the public is portrayed as a new social entity that actively enjoys the popular culture of the "audio-visual age" and as a fragmented group of humans who are embedded in materialism and consumer culture. Kim Seung-ok sharply delves into the signs of mass-consumption society through the 1960s before the literary image of the public began in earnest. Kim Seung-ok's *60s style* finally shows that the public as a consumer who was captured by material and sexual desires was form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ruling ideology of economic growth in the late 60s.

Key words: Kim Seung-ok, 60s style, mass consumer society, mass, symptom, developmentalism

투 고 일 : 2020년 11월 29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30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